구름비유랑단

보이지 않는 마을들

구럼비유랑단

구럼비 유랑단

구럼비 유랑단은 수눌음과 삼무정신의 제주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강정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발굴, 창작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삶,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글쓴이 이 상

주로 '거리예술' 분야의 공연매체에서 작가와 연출로 노동하고 있으며, 이 때 '거리'는 행위가 펼쳐지는 장소 또는 배경으로서의 용도를 넘어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폭력적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도 강정마을에 이주해 살고 있고,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병역거부자이다. *http://e-sang.org

프로젝트 소개

'보이지 않는 마을들' 프로젝트는 제주의 난개발을 주목하며 시작되었다.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나무들이 학살당한 비자림로와 제2공항이 생기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오름들을 두고 활동한 두 시민모임(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 성난오름대변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내용을 아카이브 하였다. 또한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고 폭력적으로 들어선 강정해군기지의 어린이날 부대개방행사에서 기지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치전시 형태의 액션을 진행하였으며, 난개발을 주제로 제주 곳곳에서 퍼포먼스 작업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양용찬 열사의 생애와 오늘날 제주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연결하여 만든 창작연극공연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내용과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전부 시민들에게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인쇄물을 제작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차례

I. 이상은 이랬다 07

1. 시발 09

2. 확장 10

3. 정리된 구상 12

II. 그런데 현실은 15

1. 시민모임활동 17

1)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17

2) 성난오름대변인단 23

2. 전시 28

1) 시발 28

2) 다시 시작 29

3) 전시 '강정, 구럼비' 36

4) 전시 이후 46

3. 퍼포먼스 42

0) 퍼포먼스 내용 42

1) 방향에 대하여 42

2) 장소에 대하여 43

4. 연극공연 51

1) 시놉시스 51

2) 연출의 말 58

5. 기록 61

1) 인쇄물 61

2) 편지 63

III. 마무리 79

I. 이상은 이랬다.

1. 시발(始發)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제주해군기지에서는 부대 개방행사를 한다. 많은 사람이 가족, 연인, 친구와 부대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구럼비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덮어 만들어졌다. 구럼비바위는 강정해군기지반대투쟁과 생명평화운동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삶의 터전이었다. 구럼비바위가 발파되던 날, 사람들은 짐승처럼 울었다.

나는 부대개방행사를 찾는 시민들이 적어도 이 장소가 원래 어떤 장소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정보전달 이상(以上)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민의 과정을 거치며 구럼비바위라는 장소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기억들을 모아 전시 형태로 풀어내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구상의 **시발점이었다.**

내 이름은 **'이상'**이다.

2. 확장

나는 강정마을에 살고 있다. 하지만 구럼비바위를 본 적은 없다. 구럼비바위가 발파되었던 2012년 3월 7일 이후, 나는 처음 강정마을에 왔다. 강정마을의 구럼비바위를 본 적은 없지만, 그 장소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통해 그 바위를 만나고자 **노력했다.** 아니,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런 방식의 상상과 감정이입의 시간들이 나의 일상과 관계에서 자연스러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아마도 참여하지 못했던 과거의 날들에 대한 부채감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오늘날 두 눈 뜨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 제2공항, 비자림로, 예레휴양형주거단지. 현재진행중인 또 다른 구럼비바위의 이름들. 물리적 거점의 상실이 정서적 거점의 상실로 이어지는 일들은 강정마을을 거쳐 제주 전역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 흐름에 발맞추어 자연스레 프로젝트의 구상내용 또한 확장되어 **갔다.**

프로젝트에서 구럼비바위를 다루는 내용이 '사라진 과거의 장소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모으는 **것**'이라면, 비자림로와 오름에 대한 작업은 '현재 사라지고 있는 장소에 스며들어 있는 개인의 기억들'과 '미래에 제2공항이 생기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소에 얽혀있는 개인의 기억들'을 함께 모으는 **것**.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을 '장소에 얽힌 개인의 기억'과 결합하여 전시와 책, 공연으로 풀어내는 **것**.

이를 통해 장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

지는 것 이상(以上)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고자 **했다.** 모든 장소에는 누군가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으며, 장소를 빼앗긴다는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그 누군가를 만들어온 과거와 기억이 함께 파괴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나누고 **싶었다.**

3. 정리된 구상

이상(理想)은 이랬다.

제주에서 시민으로 그리고 활동가로 여러 운동에 참여하며 아쉬웠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늘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다는 체감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물론 그런 현상이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시민운동과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투쟁이 더 많은 시민에게 공유되거나 확장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민들을 만나고 **싶었다.** 어떤 결과물을 보고, 받아들이는 수동적 위치에 놓인 시민들이 아니라 직접 새로운 방식의 프로젝트에 노동자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시민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사실 전시와 책, 공연을 만드는 일은 예술노동자들의 영역이다. 그런데도 이 프로젝트를 문화재단이 아닌 시민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에 넣었던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 새로운 시민모임의 결성을 도모하여 기억을 모으는 리서치 작업을 **제안하고,** 그 시민모임의 결과물을 예술가들이 전시와 책, 공연의 형태로 풀어내어 또 다른 시민들을 만나는 **것.** 시민모임과 예술가 단위가 함께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 이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의 다양한 방식들을 실험해보는 **것.**

그렇게 프로젝트 구상이 **마무리되었다.**

프로젝트 지원서를 내고 선정 여부가 확인되어 지원금을 교부받는 기간에 기존에 있던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재개하였고, '성난오름대변인단'이라는 이름의 시민모임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우리가 기획하고 제안해서가 아니라, 제주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임들이었다. 얼마나 **이상(理想)적인가!** 동시에 지역에서 난개발과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시민모임을 조직하기에는 당시 상황에서 쉽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뭣이 중헌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단위의 모임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성난오름대변인단' 두 모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에서는 비자림로 인근 송당마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기초단계의 아이디어를 공유받았다. '성난오름대변인단'에서 역시 제2공항이 생기면 사라질 10개의 오름을 투어하며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理想)적인 것, 그 이상(以上)이었다.

II. 그런데 현실은,

1. 시민모임활동

1)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2018년 8월 2일, 비자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약 1,000그루의 삼나무가 2~3일 사이에 베어졌다. 순식간에 베어진 비자림로의 모습이 공개되자 전국 여론이 들끓었다. 제주도는 여론에 놀라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열흘 뒤인 8월 12일, 비자림로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공사 현장에 모여 '나는 한 그루 나무예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에 기자회견, 토론회, 문화제, 도의원 면담, 퍼포먼스, 성명서발표, 피켓시위, 필리버스터 등을 진행해왔다.

공사가 중단된 지 7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말, 제주도는 재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3월 19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꾸려 비자림로 공사구간에 나무 오두막과 텐트를 설치하고 숙박하거나 집에서 오가며 감시활동을 **진행했다.** 공사 모니터링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활동들 외에도 여러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5월에는 비자림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밝혀내어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자림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의 활동내용들을 아카이브 **하였다.**

<비자림로 경과 정리> (정리: 김순애)/ (사진: 김수오, 오영철)

제 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에 비자림로 리모델링이 투자 우선순위 3위	
2014/04	비자림로 확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1,282,000,000원)
2016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시작(45억원을 들여 72필지(11만 816㎡)의 75%인 54필지(8만8903㎡)에 대한 보상 진행)
2017/12	오영훈 의원,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특별 교부세 10억 확보
2018/06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입찰공고 알림(약 165억원)
2018/08/02	비자림로 공사 시작. 30년-50년 수령의 삼나무 1000그루 정도가 2-3일 사이에 베어짐
2018/08/07	삼나무가 순식간에 베어지자 전국 여론이 들끓음. 제주도는 놀라서 공사를 잠정 중단시킴
2018/08/10	제주도 안동우 부지사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비자림로 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발표
2018/08/17	곶자왈사람들과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는시민모임, 노동장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비자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
2019/02/11	텀블벅을 통해 진행한 '나는 한그루 나무에요-tree face'현수막 비자림로 게시 퍼포먼스 진행
2019/03/18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림로 공사구간의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 방침 보완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8월 공사 중지 이후 7개월만에 2월 20일 재착공 계획 발표
2019/03/19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을 꾸려 비자림로 공사구간에 나무 오두막과 텐트를 설치하고 숙박하거나 집에서 오고가며 감시활동 진행

2019/03/23	23,24일간의 벌목으로 비자림로가 관통하는 지하수보존 1급 천미천 주변의 자생나무 500여그루가 베어짐
2019/04/08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1670인 시민 선언문'발표
2019/05/07	제주도는 시민모임의 요구에 삼나무 외에 이식 가치가 있는 나무를 전문가 2인과 같이 조사하여 총 184그루의 나무를 이식하기로 결정하고 표식
2019/05/28	3구간 벌목 시작. 벌목 현장 인근에서 팔색조가 울기 시작해 공사를 중지해 달라 호소 제주도 환경과에 조사요청, 영산강유역 환경청 제주사무소와 함께 방문하여 소리 확인
2019/05/29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쇠똥구리까지 추가로 발견되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제주도의 합의사항에 따라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오는 6월 28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 내용의 공문 발송

2019/05/31	제주도는 공사를 중단하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말조사반을 구성, 조사, 보전대책 마련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2019/06/10~24	비자림로 생태 정밀조사반이 비자림로 조사 진행 조사 결과 팔색조,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붉은해오라기, 붉은배새매, 긴꼬리딱새 등 6종의 멸종위기종 발견
2019/06/24	비자림로 정밀조사 과정 중에서 지름 40cm 황칠나무 불법 벌목되어 있는 것을 발견,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발표
2019/07/23	제주도에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비자림로 공사를 취소하고 비자림로를 야생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진행했다.

하지만 비자림로 인근 송당마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작업을 진행하는 아이디어는 당장에 실행할 수 없었다.

2) 성난오름대변인단

2019년 3월 16일 '성난오름대변인단'의 성난오름투어가 시작되었다. 약 3달간 8회에 걸쳐 제2공항이 생기면 사라질 10개의 오름을 비롯하여 그 외의 제2공항 부지 지역 등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여름 초, 남은 2회의 오름투어를 앞두고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여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성난오름대변인단'은 현재, 하반기 이어질 투어를 준비하는 동시에 '공항 말고 바당', '공항 말고 난장'이라는 제목의 문화제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제는 풍광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이 많은 성산포 앞바다와 신산리 마을카페 앞에서 진행하였다. '제주 그대로가 아름다워' 라는 문구에 공감하는 시민과 예술가들이 춤, 노래, 써클댄스 등 각자의 재능을 나누었고, 많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문화제에 참여하였다.

오름을 투어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을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세세하게 듣는 것은 상상했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참가자들과 함께 놀이하고 각자의 지식을 나누는 등 서로가 선생님이 되며 그 시간들을 **채워나갔다.** 자연스럽게 상황이 펼쳐지는 대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진행해나갔다.**

우리는 투어를 이끄는 강사활동을 지원하며 그들과 **함께 하였다.**

<성난오름투어 활동일정 정리>(정리:김섬) / 사진(촬영: 김수오, 김섬)

2019/03/16	유건에오름/ 면회(ㅁ、르)/ 난산리주민 김경배님 자택
2019/03/23	모구리오름/ 나시리오름
2019/03/30	독자봉/ 통오름/ 김경배님 자택
2019/04/07	수산진성(수산초등학교, 진안할망당)/ 수산 한못/ 낭끼오름
2019/04/20	수산본향당(울퉤ㅁ、루 하로산당) / 대수산봉(큰물뫼오름) / 비자림로 등
2019/05/04	왕뫼오름(왕메, 왕미, 대왕산) / 동검은이오름
2019/05/11	뒤굽은이오름(후곡악, 후부악, 후궁악)
2019/05/25	은다리오름(윤드리오름, 은월봉)
* 진드기로 인해 상반기 투어 마무리 하며 하반기에 이어 진행, 그동안 문화제를 기획해서 진행할 계획	
2019/07/14	'제주, 그대로가 아름다워. 공항 말고 바당' 문화제 주최
2019/08/18	'제주, 그대로가 아름다워. 공항 말고 난장' 문화제 주최

2. 전시

1) 시발

그렇게 두 개의 시민모임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훌륭히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활동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모았다.**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던 그 과정에서 무언가 이상(異常)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땐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5월 5일 전시 준비에 돌입하며 깨달았다. "아, 애초에 구상했던 이 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작업을 진행할 모임이 없어지게 된 거구나. 망했네."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을 '장소에 얽힌 개인의 기억'과 결합하여 전시와 책, 공연으로 풀어내겠다는 컨셉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두 시민모임의 활동내용을 통해 리서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오만에 있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경우 주민 인터뷰 작업은 그들 내부에서 논의해오던 여러 활동 아이디어 중 하나였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나니 현장에서 공사를 모니터링 하는 활동과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활동들 외에 다른 것들을 전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 이어졌다. '성난오름투어'의 경우 오름을 투어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그 오름에 얽힌 개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하였으나, 실제 투어에서 그 부분이 상상했던 것처럼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누어지지 못했다. 이 프로젝

트를 완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엉성한 기획력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리서치작업을 타 시민모임이 아닌 우리가 직접 진행했어야 했던 것이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이 상황은 온전한 나의 책임이었다. 마음을 다잡았다. 괴로워하기보다 수습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자고 **다짐했다.** 우선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자고.**

먼저 이 프로젝트가 다루고자 하는 키워드를 한 단어로 단순화시켜 정리했다. '제주의 난개발'.
"그래. 이 하나의 키워드로부터 새로이 작업들을 구상/창작/**진행하자.** 그리고 그 개별적인 결과물들을 정리해나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마무리하자.**"

후. 정말 나란 녀석은 상상 이상(以上)이었다.

2) 다시 시작

5월 5일 전시를 준비하며 시작한 것은 애초 구상대로 '구럼비에 얽힌 개인의 기억'을 모으는 일이었다.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는 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강정마을 그리고 구럼비바위와 관련된- 책들과 노래, 영상물들을 리서치했다.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

었고, 양도 많지 않았다. '아, 역시 직접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터뷰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구나.' 자괴감이 들었다. 하지만 함께하던 팀원들이 새로운 대안들을 제안해주었다.

그것은 전시를 위해 제작할 구조물이 5월 5일 한 번의 전시를 위해 쓰이고 마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전시 이후, 마을의 일상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물에 들어갈 내용 또한 보다 보편적이고 시적으로 제주의 난개발과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함께 담아내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로 인해 시집, 노랫말, 책들을 망라한 새로운 리서치 작업이 시작되었고 6개의 텍스트를 결정하였다. 그 외에 연산호 그림을 추가로 4개 더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구럼

비지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의 해군기지가 어떤 장소를 파괴하여 들어섰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었다. 기계가 찍어낸 것 같은 느낌을 원하지 않았기에, 모든 작업은 수작업이었다.

작업을 진행하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제목을 짓거나 찾는 일이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여러 선택을 두고 머뭇거리게 되곤 한다. 전시를 시작으로 올 한 해(2019년)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마을들' 이다. 다른 작업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제목을 선택했다. 작년의 경험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작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넥스트에 선정된 친구들과 공동-창작했던 '보이지 않는 도시', 그리고 개인 창작했던 'ㅂㅇㅈ ㅇㄴ ㄷㅅ'는 모두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참조한 작업이다. '보이지 않는 도시'는 프랑스 연출가 에르베의 제안들과 코치를 받으며 워크숍의 과정들 속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다. 그는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도시는 작은 한 개인의 내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어떻게 공공의 이야기로 공유되고 어떤 공동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도시' 는 도시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컨셉을 제안했다. 우리는 관객이 도보를 통해 한 마을을 여행하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도시

해군기지
강정천
개구럼비당
너븐덕
모살덕
멧부리
개구럼비
개구럼비코지
진소깍
구럼비 (1.2km)
할망물
남아있는
구럼비
물터진개
불턱
강정포구

를 발견하길 원했다. 몸과 내면의 여행을 통해 관객을 데리고 가려 했던 곳은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도시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용산의 현실과 일상을 관찰, 탐색하고 직접 스며들어 우리의 가상의 기억을 투사했다. 'ㅂㅇㅈ ㅇㄴ ㄷㅅ'는 장소로부터 시작된 작업이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공간이 상상을 통해 다르게 보였던 어느 순간의 감각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장소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이었다. 작업의 키워드는 바로 '장소', '시간', '기억'이었다. 지금 존재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은 과거에 어떤 장소였을지에 대해 상상해 보았고, 그 가상의 장소에는 어떤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을지에 대해 상상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공연에서 연출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충돌' 이었다. 공간의 충돌, 시간의 충돌, 역할의 충돌. 즉, 1) 일상공간과 극적공간, 2) 공공장소와 사적장소, 3) 과거와 현재, 4) 무대와 객석, 5) 퍼포머와 시민과 관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충돌들을 공간구성과 이미지, 이야기와 '바나나우유' 등의 오브제들을 통해 일으키고자 했다. 그 충돌로 인해 만들어지는 익숙한 공간에 대한 낯선 감각을 통해 관객들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들만의 이야기와 상상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랐다.

'보이지 않는 마을들'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강정, 구럼비' Installation 전시는 공연과 전시라는 장르의 차이를 떠나 작년의 작업들과는 결이 아주 다르다. 작업 내용의 레퍼런스로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전혀 다른 프로젝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이라는 표현

이 지닌 힘에 꽂혀 버렸기 때문인 것 같다. '보이지 않는'이라는 표현은 나에게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작업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표현이기도 했다. 그 방향성이란 관객들이 공연이라는 주어진 상황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 안에서의 '여백들'이 중요하다고 나는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 작업에서 '여백'을 둔다는 것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두려운 일이다. 아니,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관객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너무 없어 보이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백이 없는 작업 혹은 자기 자신에게로 닫힌 형태의 작업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창작자의 의도와 이야기 안에서만 관객들이 사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내게 있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음은 물론, '작업 안에서 관객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객과 어떻게 평등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작업자로서 내가 가진 질문과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백'을 만드는 실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나에게 전해준 상상력과 가능성은 나에게 용기로 작용했다. '보이지 않는 마을들'의 '마을'은 그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직관적인 선택이었고, 뒤돌아보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누군가 살았을 마을,
누군가 살아갈 마을.
나의 마음, 타인의 마음, 비인간 존재의 마음.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건 아닐까?
아니, 마음이 모이면 마을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잘 모르겠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쩌면 작업을 통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정말 '보이지 않는' 마을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두 눈 뜨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객기 또는 고집을 계속 증명하기 위한 발버둥일지도 모르겠다.

기억, 시간, 장소, 존재.

구럼비, 비자림로의 나무들, 성산의 오름들.

쫓겨나고 빼앗겨온 마음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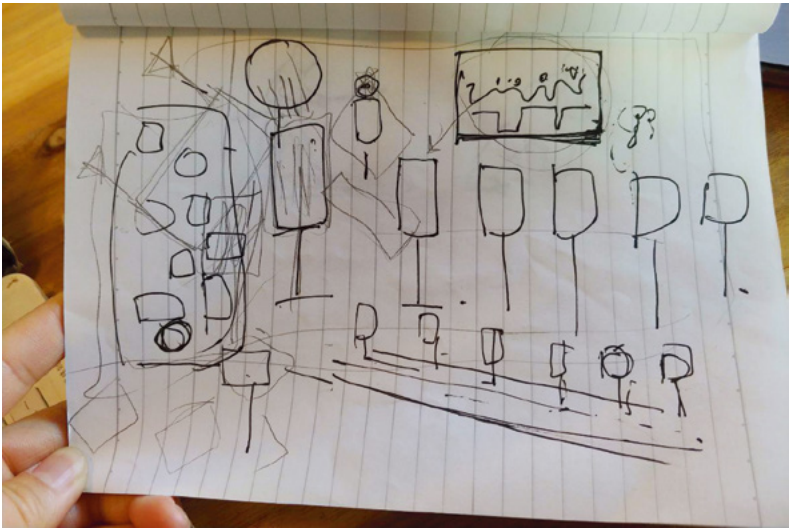
좋은 능력과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서 외롭지 않았다. 전시를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 들은 부대개방행사를 찾는 시민들이다. 당당히, 담담히 하루를 보내야지. 초라함에 위축되지도, 우월감에 심취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초라해지고 또 떳떳해야지.

3) 전시 '강정, 구럼비'

이상(理想)은 이랬다.

지난 2년간 해군기지 부대개방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에 해군은 시민들의 차량을 부대 외 주차공간에 주차하도록 안내했다. 차에서 내린 시민들은 인도를 통해 걸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전시구성은 시민들이 지나갈 인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인도를 이루고 있는 타일형식의 바닥을 원고지로 가정하여 구럼비에 얽힌 개인의 기억들을 적어 놓는 것으로 정리했다. 즉, 시민들이 기지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표지판들을 하나씩 보며 지



나가고, 바닥에 적혀 있는 텍스트들을 확인하며, 마지막에는 구럼비지도를 보고, 거기에서 전시내용이 담긴 핸드아웃을 받게 되는 구성이었다. 실제 그렇게 설치와 준비를 마무리했다.

현실은 이랬다.

해군에서는 이전과 달리 시민들의 차량을 부대 내 주차공간으로 안내했다. 즉,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량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올해 해군 측에서 밝힌 부대개방행사 참가자수는 6,000명이라고 한다. 적어도 2,000명 정도의 시민들은 이 전시를 지나치거나, 관람하게 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이로 인해 인도를 이용해서 기지로 들어가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그저 100여명 남

짓 하는 사람들이 전시를 지나치거나, 관람했다.

어쩌면 작년 해군국제관함식을 거치며- '해군에서는 부대 개방행사를 찾는 시민들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우리들이 어떤 형태로든 만나는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기지 안으로 차량을 인도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상상해볼 수 있었던 '초라함의 상황' 과는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느끼게 된 초라함이 있었다.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렇지 뭐.

단 한 팀이라도, 전시를 보고 기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날의 전시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

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라는 표정으로 표지판을 보며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지나갔다. 반면,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표지판과 바닥에 적힌 글씨를 읽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나는 당신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라고 반말을 하며 내가 건넨 핸드아웃을 치고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한참 동안 구럼비지도를 바라보았고, 핸드아웃을 받으며 고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전시가 마무리되었고, 나는 우리의 노력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invisible)는 느낌을 받았다. 정리를 마친 뒤, 소주를 마시고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

4) 전시 이후

전시 이후, 표지판들은 마을의 일상공간 곳곳에 배치되었다. 마을 사거리 평화센터 앞, 버스정류장, 원형로타리 등등. 전시 때보다 일상공간에 자연스레 스며든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후, 강풍에 넘어지기를 반복하여 표지판들을 회수하였다. 추후, 공간을 확정하면 시멘트로 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에 진행할 예정이다. 강정마을의 일상투쟁이 계속되는 것처럼, 표지판 또한 마을의 일상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기를 기대한다.

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일상에 존재하며 종종 마을을 지나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만남을 통해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지?'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라본다.

전시 '강정, 구럼비'

기획- 이상

제작, 디자인- 모습

* 모든 전시 이미지 및 영상은 e-sang.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US
36
강정 오지 맙서
해군놀든, 토건족놀든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것은
한낱 돌들
한 판 순정인 구럼비…

3. 퍼포먼스

0) 퍼포먼스 내용

'나'는 내가 만든 '알'에서 태어났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을 만들었고, '알'은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알'은 '우리'가 되었다. '우리'는 궁금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를 만든 것은 '누구'이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인지. 그 궁금증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결국, 이 이미지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사이를 찾아 헤매는 과정의 기록이 되었다.

1) 방향에 대하여

전시준비팀이 모여 의논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5월 5일 전시가 메시지 위주였으니 그와는 다른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보다 추상적이지만 시민들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이미지 작업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그리고 전시라는 매체에 한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할 방법을 열어두기로 했다. '난개발'이라는 주제를 유지하되, 보다 상상력을 더 발휘해보고 다양한 해

석이 가능한 여러 실험들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 이후, 제작을 맡은 친구들이 바다쓰레기 등을 재료로 오브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오브제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작업의 큰 틀을 잡았다. 퍼포먼스는 예레휴양영주거단지, 성산의 오름들, 비자림로 등 대표적이고 직접적으로 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기록 위주로 진행하는 동시에 제주시내 대학로 등에 서는 현장중심의 퍼포먼스를 병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주의 시민들과 난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각적으로 공유하는 시도를 하고, 기록된 퍼포먼스의 이미지와 공간에 대한 설명을 SNS와 인쇄물을 통해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추후 작업을 계획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 수습반이 되어버린 것 같다.

2) 장소에 대하여

_1 바다

제주 바다의 해양생태계는 난개발과 서식처 파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그리고 군사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죽은 채 발견된 보호종 바다거북의 배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이 쏟아져 나오고, 120여 마리 남아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처리하지 못한 똥물 하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는가 하면 밀려온 해양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와 연안 가까이 들어선 해상풍력발전이 바다 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제주신항

건설을 위해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제주 앞바다를 매립하겠다고 한다. 한편, 제주바당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약 30년간 평균 4.4m의 해수면 상승률을 기록하였다.(설명 : 조약골)

_2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997년 11월 5일 서귀포시장 오광협이 예래동 일원 면적 403,000㎡의 부지에 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제주도(도지사 우근민)가 2003년 10월 14일 JDC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한 뒤 약 3년이 지나, 서귀포시장(이영두)이 2006년 11월 14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 후 국토부 산하의 JDC는

사업부지 토지 수용 절차에 나섰으나 원토지주들인 주민들과의 협의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6일, 그 땅은 국가에 강제 수용되었다. 땅을 빼앗긴 주민들은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긴 시간의 투쟁이 이어졌다. 법원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 즉, 공공성을 담보하는 개념과 목적이 다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인가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돈 많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원심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공정률 70%에 이르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유령도시'가 되어,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무분별한 제주 난개발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을 막아낸 시민들이 승리한 현장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유원지' 라는 목적대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하거나, 원래 자신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려놓으라고.

_3 비자림로

도로확장공사라는 명목으로 비자림로의 삼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이 잘려 나갔으며, 비자림로 도로확장공사는 제2공항 연계도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_4 통오름

제2공항이 생기면 성산지역 10개의 오름들이 사라진다. 통

오름은 그중에서도 많이 호명되지 않는 편에 속하는 오름이다. 통오름은 물건을 담는 통과 비슷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을이면 천연정원이 되는 곳으로 동쪽 사면을 빼고는 오름 대부분이 나지막한 풀들로 뒤덮여 있고 분화구 안에는 밭이 자리한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한다. 분화구 둘레는 약 1km 정도로 제주올레길 3코스에 오름능선길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종 노루들의 모습이 발견되곤 한다.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되면 비행기에 걸린다는 이유로 흔적도

남지 않게 잘려나갈 위기에 처해있다.

_5 알뜨르 비행장 & .

알뜨르 비행장은 제주도민들이 농사를 짓던 삶의 터전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3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비행장이 만들어졌다. 이후, 1937년 수십만 명의 중국시민들이 학살당한 난징대학살에서 일제의 대중국도양폭격기지로 활용되었다.

난개발을 비롯하여 물리적 거점의 상실이 정서적 거점의 상실로 이어지는 일들은 비단 특정한 장소들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퍼포먼스 '보이지 않는 마을들'

퍼포먼스 – 이상

바다 쓰레기를 이용한 오브제 제작 – 모습

사진 – 정재호

* 모든 퍼포먼스 이미지는 e-sang.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연극 <2019 사랑 혹은 사랑법>

1) 시놉시스

프롤로그
[음향 – 폭격, 폭파음, 군함 입출항 신호음 뱃고동 소리, 군가, 군인 기합소리 갈매기소리 등의 상징적인 효과음]
[영상 – 군함, 잠수함, 전투기 등의 모습을 변형시킨 이미지, 아이들 그림 속에 있는 전쟁장면, 그림 등의 영상을 레드 물감이 덮고 제목 '사랑 혹은 사랑법'F.I]

#1 고항일의 이야기
서귀포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일하는 고항일은 물리학을 전공한 만화가로 강정에 산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사라져가는 제주의 모습을 개탄한다.
제주를 '제2의 하와이가 아닌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민에 의한 제주다운 제주'를 지키자며 분신한 청년, 양용찬에 대해 회상한다. 항일은 더없이 보고 싶고 그리운 그 친구의 이야기를 연극 무대에 올리자고 제안한다.

#2 현지의 이야기
성산이 고향인 김현지! 서울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나운서를 준비하다가, 제2공항 계획으로 고향이

사라진다는 경각에 고향을 지키고자 성산으로 돌아와 온갖 방법과 매체로 마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요망진 청년이다.

#3 용찬의 일기
지금 실재로 남아있는 용찬의 일기장을 통해 그를 만나고 추적해 간다.

#3-1 용찬 고2, 귤을 딴 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귤나무가 한 해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열매를 나무로부터 빼앗아와야만 하는가?' 귤을 딴 날 쓴 일기를 보며 그의 감성과 생명에 대한 애정을 느낀다.

#3-1 고3의 일기 – 정의의 사도가 되리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그는 보편적이지는 않은 꿈을 꾼다.
'석가모니나 예수처럼 되지는 못할지언정 인간 기생충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사랑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리라!'

#4 용찬의 벗, 오창수의 회상
"그 아이 별명이 애기에요.
웃는 게 애기같이 해맑아요."
그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다 울컥하여 그를 부른다.
그가 말한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그 무엇이든 저 파도처

럼 부딪치리라!'

#5 용찬의 UR
농산물 수입개방이 알려지자, 그는 막아야 한다고 온동네 뛰어다니며 삼춘들을 설득하며 동분서주 한다.

#6 현지, 제가 성산으로 돌아온 건
아나운서를 포기하고 성산으로 돌아온 이유와 구체적인 활동, 그 활동의 의미와 희망! 실재 성산주민들의 제2공항에 대한 반응을 듣는다.

#7 제가 강정으로 돌아온 건
육지에 나가 살던 고항일은 어머니가 아프자 강정으로 돌아온다. 어머니 몸이 회복되면 다시 육지로 올라가려 했지만, 해군기지 문제가 터지면서 10년 째 강정에 남게 된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마을공동체와 구럼비, 연산호가 파괴되었다.

#8 사라지는 마을 성산
신의 선물, 성산의 오름과 동굴, 새와 풀 꽃 나무가 구럼비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성산 제주가 파괴되고 있다. 온몸이 아프다
이 파괴를 가능하게 만든 제주개발특별법!

#9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하여

“문안에 ‘법안 제 1조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라고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도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명시는 없다. 도민의 54%가 넘는 농민들은 어찌하라고?” 그는 분노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 막아야한다!’

#10 현지의 분노
기존 공항을 보완하여 해결가능한 ADPI 보고서! 감춘 이유가 무엇인가? 공군기지 때문 아닌가?
제주도지사와 국토부는 제주를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11 고항일의 최후 진술
고항일, “강정에 제주해군기지를 강제 유치하느라 뜯어고친 법안들, 구상권, 여론조작, 다 불법 위법 편법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무죄다!”
“진상규명 하라” 주장하지만, 법정 판결은 모두 유죄!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12 한라산에 대하여
그는 말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눈만 뜨면 한라산을 봤어, 요새는, 아침이면 한라산에 올라, 올라갈 때마다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 설문대할망의 신음소리가 들려!

#13 용찬의 시 ‘나는 가리라’

‘자식에게는 손자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한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야만 한다. 나는 가리라 바람 속으로’
그는 새벽길을 하염없이 걷는다.

#14 제주 도지사와 국토부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 파헤쳐지고 난도질 당하는 제주, 군사기지화 되고 있는 제주.
우리는 도지사와 국토부에 바란다!

#15 꼭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한다. 꼭 막아야 한다 제주를 지켜야 한다
고민을 거듭하던 그, 서서히 옥상으로 올라간다.
가자! 사랑으로 가자 온몸으로 가자!

#16 용찬의 어머님 전상서
“어머니 아버지 가장 큰 불효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온몸 절규로 아들을 말린다. 하지만 아들은 “어멍! 제주도 개발법 막아야해요… 제주를 죽이는 법이에요, 이렇게해서라도 알려야 해요”

#16-1 뉴스 속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이 막바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7일 오후 7시 40분 경, 스물 다섯 살 양용찬씨가 서귀포시 3층 건물

옥상에서 순식간에 불꽃처럼 사라지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17 그의 싯게날, 용찬과 어머니
올 해는 그의 싯게날(11월7일)과 생일(음력 9월19일)이 같은 날이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멍 자식으로 나게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난 다시 태어나도 제주에, 어멍 자식으로 태어날 거 마심.'

#18 항일과 현지 승한의 소회
그 친구가 지금 한라산에서 제주, 서귀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항일, 현지는 용찬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다가 용찬의 역할을 연기한 승한을 불러낸다
승한은 말한다. 그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제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용찬이 그립다
승한은 용찬을 불러낸다

#19 제주의 우리!
우리는 제주를 사랑한다. 제주를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다운 제주로 지키자는 관객과의 다짐 약속 희망!
#에필로그
관객 함께하는 대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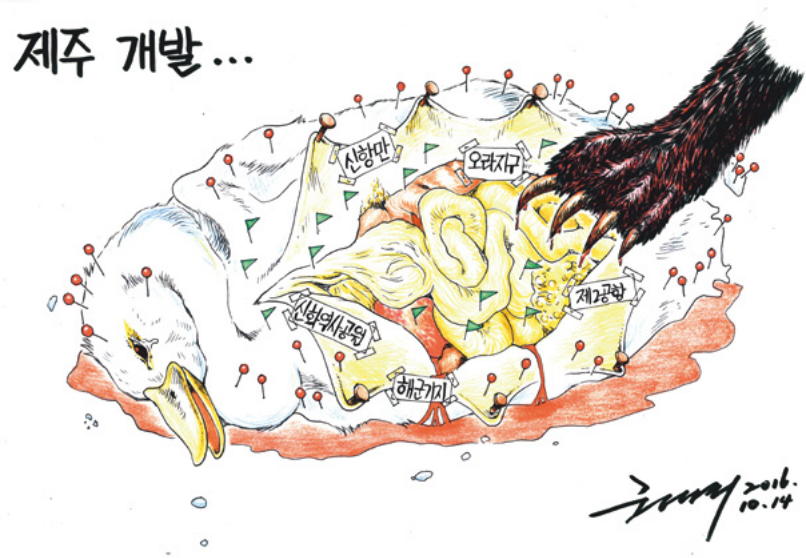
노래 중 용찬과 제주도에 대한 여러 영상

[놀이 중에 영상; 자막]

“나는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 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 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써, 생활의 보금자리로써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영상을 그린색 물감이 덮고

제목 ‘사랑 혹은 사랑법’ F.I



(그림 : 고권일)

2) 연출의 말

사랑으로 가자! 온몸으로 가자! – 양용찬열사의 시 중에서 –

9년전, 강정에 와
강정에 어찌 해적기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강정 주민들 피눈물 보고는… 떠나지 못해 여태 살며
무참하게 도륙당하는 제주를 보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제주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강정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왼 쪽은 한라산 오른 쪽은 바당이 보였습니다.
강정에서 서쪽으로 가노라면
왼편엔 바당, 오른편에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이제 전.후.좌.우 놀랍게도 시멘트 덩어리들만 보입니다.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해군기지를 세우더니!
제2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 공군기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주도민의 제주도는 사라지고, 군사기지들이 진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을 관광과 휴식으로 보내고, 물자를 보급하고 기름을 채우고 갑니다,
해상에서 전쟁연습을 하며 쌓은 쓰레기와 분뇨를 제주에 버리고!
곶자왈과 오름, 바당은 난도질 당하고 쓰레기 오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수산업자와 토건자본가, 권력자들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으로 사라져가는, 아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제주의 마을들, 생명들을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아주 작은 섬 제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평화의 섬 제주에 누구를 위해? 누가? 이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지요?

가슴을 치며 그를 생각합니다.
한라산을 볼 때마다 그가 생각났습니다. 양용찬열사,,,

어찌하면 이제라도 설문대 할망이 물려주신 모습의 제주를 지키나?
후손들에게 전쟁기지 아닌 아름다움 그 자체의 제주를 물려주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연극을 합니다.

제주도민 우리… 대한민국 팔도 전체국민 중에 1%!

바닷물 새어 들어오는 댐의 구멍을 막아 나라를 지킨 어떤 마을의 소년…1명!
이게 우리의 운명일까요?
그렇다면 가야겠죠!

사랑으로, 온몸으로!

2019년10월29일 강정에서 양용찬열사의 유서를 되새기며 – 방은미

연극 '2019 사랑 혹은 사랑법'

시간: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오후 7시

장소: 동홍아트홀 (서귀포시 동홍로104)

작/ 연출 – 방은미
배우 – 양승한, 고권일, 김현지, 하애정
음악감독 – 박수환
영상감독 – 김윤곤
조명감독 – 이재성
무대제작 – 김성규
분장–김미량
영상제공 – 강한방울
사진제공 – 강정효
웹포스터디자인–고지연
인쇄물포스터디자인–김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 이상

5.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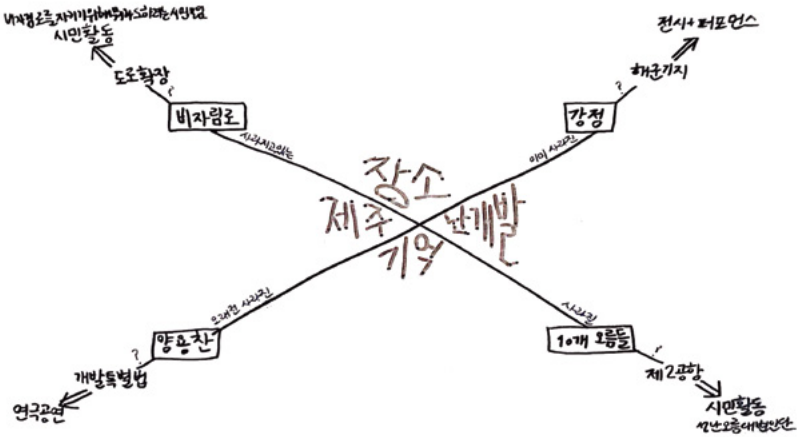
1) 인쇄물

특정 장소들에 얽힌 개인의 기억들을 모아 책이라는 매체로 풀어내고자 했던 컨셉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을들' 프로젝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펼쳐질 대로 펼쳐져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시민활동/전시/퍼포먼스/공연)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자연스레 책의 역할은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내용을 정리하는 자료집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그렇게 나온 인쇄물을 '책'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굳이 자료집을 '종이'를 사용해서 인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책' 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인쇄물' 이라는 폭넓은 용어를 사용하며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고민이 필요했다. 고민의 내용은 '이 내용들이 종이, 더 본질적으로 가자면 나무를 사용하면서까지 인쇄물로 출력하고 공유할 만한 내용들인가?' 라는 것이었다. 그저 활동정리만 한다면, 전자파일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난개발'을 주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그만한 필요가 없는 데에 종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인쇄물을 낸다면 활동정리 이상(以上)의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씩 잡아갔다. 프로젝트의 구상단계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왔고, 어떻게 꼬여왔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수습해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활동들을 정리해나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인쇄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보 기획자나 신생 시민모임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맞게 된다.' 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보다 자연스럽게 넓어질 대로 넓어진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낼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일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과정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존재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들', '터부시 되는 것들', '이름을 갖지 못한 것들', '파되괸 것들과 파괴될 것들'을 소환하고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난개발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존재들을 호명하고 드러내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일을 진행하며 결과에 가려져왔던 과정과 노동들을 드러내는 것, 이 작업에서 마땅히 시도할 수 있는 태도이자, 읽는 이로 하여금 '주제가 드러나는 결과물'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 그 사이의 빈 곳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실험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시에 '자연의 입장이 되어 서술해보기' 라는 시도를, 담당자의 제안에 따라 인쇄물에 추가함으로서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져온 난개발이라는 이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질문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과 노동들을 거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인쇄물이다.

2) 편지

뭐라고 인사를 건네야 할까요?

여전히 저를 기억한다는 당신에게 저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요?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마음과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할 것 같지만 뭐랄까. 그런 것들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 오늘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것들을 세세히 설명하지 않는 방식

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유독 힘들었던 최근의 시기를 지나며, 그리고 여전히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굳이 한 번 더 말하게 되네요.

저는 저의 이야기. 이를테면 소중한 추억이나 소소한 기억들. 앞으로 바라는 꿈이나 미래 같은 것들에 대해 남들에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저의 갈라진 손금에, 다져진 근육에, 매끈하고 검은 피부에, 찰랑거리는 눈동자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언어로 그런 것들을 뱉어내는 행위가 저 스스로에게는 조금 우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처한 상황마저 우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유독 저의 큰 키와 넓은 어깨를 좋아하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종종 내게 와서 몸을 기대곤 했죠. 비단,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당신처럼 내 품에 몸을 안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로부터 많은 위로와 안정감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좋지도 싫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에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바다를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피부에 닿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좋아합니다. 손 위로 게가 지나갈 때 느껴지는 따가운 느낌과 파도와 함께 춤추던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여기에서도 눈을 감고 생각하면 바람에 실려 온 바다냄새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아쉬운 것은, 바다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저 또한 무수히 많은 생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유독 당신을 기억하게 된 계기는 보름달이 뜬 바로 그 밤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할까요? 종종 사람들은 찰랑거리는 나의 눈물을 받아다가 마시곤 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때까지는 늘 있어왔던 하루 중 하나일 뿐이었고, 당신 또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당신을 기억하는 이유는 나의 눈물을 받아다 마시고 간 그 날 이후, 당신이 저를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덕분에 아프던 몸이 나았다며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지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저 저대로 존재할 뿐인데, 사람들은 저의 눈물에 '할망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그것을 떠마시

고, 그것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로 불처럼 번져 사실이 되어버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자 저의 눈물을 받아가기 위해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수천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들을 만나기 전에는 바람을 맞고, 파도치는 바닷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의 해, 밤의 별과 달.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맞으며 제가 있는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생명들로부터 받아낸 힘을 끌어 모아 내 몸 곳곳에서 물이 넘쳐흐르도록 힘을 냈습니다. 그 물로부터 꽃과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내 그들은 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다양한 동물들이 생의 원리를 따라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을 모아둔 나의 엉덩이에 고동과 멍게가 모여 살았고, 내 입에서 뿜어낸 물바구니틈에는 작은 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생명들이 필요에 따라 서로를 잡아먹고 잡아먹히며 살았습니다. 간혹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죽은 물고기가 내 몸 위로 떠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썩어버린 물고기마저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존재했습니다.

인간들을 만난 이 후에도 나의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은 이제 인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사실 너무 오래 전 이야기여서 인간을 처음 만난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리고 첫 인상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종종 물고기들을 사냥했습니다. 아니.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잡았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냥을 하더니 먹지도 않고 다시 풀어주기를 반복할까?

오랜 시간이 흘러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일종의 유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물건을 가지고와서 물고기는 잡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볼 때는 뭐랄까, 어떤 종류의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와 나누어 먹는 모습들, 가벼운 집을 짓고 하룻밤을 잔 뒤 떠나는 사람들, 내 몸에 붙어있던 미역을 떼내어 불에 구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떤 인간들은 썩지도 않은 처음 보는 물건들을 내 몸에 버려두고 가기도 했지요. 그것들은 나와 한 몸이 되지 못했고, 파도가 심하게 부는 날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인간들은 내 몸 위를 걸으며 내 몸에 난 들꽃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겁에 질린 듯 보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누군가로부터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 날엔 멀리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독 인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지만, 다른 여러 생명체들이 내 몸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듯이 인간과의 반복되는 만남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유독 많은 인간들이 저를 찾아왔지요. 보름달이 뜬 그날 밤 이 후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던 당신도 매일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내 몸 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지켜야 한다.' 고 말하더군요. 정말 많은 인간들이 내 몸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인간들은 기도를 했어요. '평화' 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제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여러 명이 서로 손을 잡고 내 몸 위를 걸어 다니기도 했지요. 울고 있던 인간들의 모습.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던 인간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달도 보이지 않는 밤, 내 몸에 살을 맞대고 한숨을 뱉어내던 인간들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인간들은 무리마다 다른 어떤 의식 같은 것을 제 몸 위에서 행하곤 했어요. 어떤 인간들은 향을 피웠고, 어떤 인간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절을 했고, 어떤 인간들은 술과 떡을 나누었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또 다른 무리의 인간들이 제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지요. 인간들끼리의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떤 인간들은 저를 보호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어떤 인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며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저를 규정짓더군요. 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인간들끼리의 싸움은 역시나 제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인간들끼리 왜 나를 사이에 두고 저렇게 싸우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 어

려운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가치 있고 없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존재는 존재일 뿐인 것을. 특별히 덜 가치 있는 것도, 더 가치 없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나를 그리워하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존재에 대한 가치의 유무와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는 보다 더 많은 인간들이 내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전에 지었던 집보다 더 무거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자연스레 그것들 또한 내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가는 태풍이 불어 그 집마저 파괴되었지만, 인간들은 다시 내 몸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힘들어보였지만, 어떤 사명감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저를 지켜야한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를 지키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치 못해 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인간들이 나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는 인간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보호라니요.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를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를 파괴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이고, 존재는 존재일 뿐인 것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몸 위에서 지내던 인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군인'이라 불리는 인간무리들이 제 몸 위로 철조망을 치더군요. 철조망을 치기 위해 제 몸 곳곳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내 저를 두고 인간들끼리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렸던 것 같아요. 분노의 감정들이 뒤섞여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도 안전, 공사, 외부세력, 군인, 위협, 경찰, 직무유기, 빨갱이, 책임, 위선과 같은 말들이 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인간들은 울부짖었고, 어떤 인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저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인간들은 다음 날,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에 입을 맞추고 기도를 올리곤 했지요.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같은 인간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 저를 두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철조망으로 인해 어디가 안이고 어디가 밖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 내 몸의 안과 밖에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기에 느끼는 의아함과 조금씩 커지는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다를 통해 나에게로 들어오던 인간들은 다른 무리의 인간들에게 막혀 내게로 오지 못했습

니다. 뭍에서는 나에게로 오고자 하는 인간무리를 막는 다른 인간무리들의 등만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인간들의 울부짖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시선 가까이에 있는 인간들은 그보다 멀리 있는 인간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쾅!

그 순간, 그 옛날 겁에 질린 듯 보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누군가로부터 몸을 숨기기도 했던 그 날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멀리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렸던 그 날 말입니다. 내 몸은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진행을 알리는 기계소리와 울부짖는 인간들의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인간들, 당신들은 내 몸을 부순 그 물건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더군요. 몇 번의 폭발음과 부서짐이 이어졌습니다. 부서져 나가는 내 몸과 날아가는 물고기들이 공중에서 뒤섞였습니다. 내 몸은 내 안에서 살아가던 생명체들의 피와 부스러기가 된 몸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새도 없이 무거운 장비가 들어와 저의 몸을 계속해서 깨부수었습니다. 부수고 부수고 부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가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현실이라 믿기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몸이 부수어지면서 내 몸을 이루던 다른 존재들도 함께 죽어나갔습니다.

나는 육체적인 통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내 몸의 일부였던 존재들. '아, 이런 거였군. 이게 아픔이구나.'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인간들과 그런 인간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또 다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은 모르겠다.'

인간들은 부서져버린 내 몸 위로 어떤 액체 같은 것을 부었습니다. 이내 그 액체는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내 몸 마디마디는 바다의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고, 숨을 뱉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디마디가, 나의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나와 가까이 이웃하던 바다에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존재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기이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것'은 땅이 아니지만, 땅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것'이 땅인 것 마냥 그 위를 걷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당신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울고 있었어요. 사진은 예전의 온전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사용된다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했어요. 크루즈 홍보라는 알 수 없는 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날의 한 순간일 뿐, 지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나는 온몸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그것'에 덮이지 않은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 지도 잘 모르겠어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닌 것만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자연의 이치를, 나는 그 자연의 일부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유일한 종족이 인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그런 일들을 벌여왔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하지만 역시, 묻지 않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애써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드는 의문과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감정의 찌끄러기를 인간인 당신에게 묻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인간들이 나를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의 기억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두려운 단 한 가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존재하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차 더 호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기억하는 인간들도 모두 사라지겠죠. 저를 깨부셨던 인간들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것만 같아. 죽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것은 구럼비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내가 보낸 편지에 대한 구럼비의 상상적 답신이다.
나는 제주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활동도 해본 적이 없는 외지인, 육지 사람이다.
우연한 계기로 제주의 난개발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요청받았고,
여러 방면에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기획자는 이 프로젝트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야기와 기억을 풀어내고자 했지만
일이 쉽사리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외려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답고 따뜻한 실제의 기억들을 공유받을 수 있다면
물론 그 또한 소중한 것이겠지만,
역으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생각을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상상을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험이 없어도 가능한 것,
혹은 없어서 더 질문할 것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른들이 종종 환경에 익숙해져 중요한 것들을 질문하는 방법을 잊곤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동안 그들이 잊고 있었던 옛날 이야

기, 혹은 그들의 꿈 같은 것을 질문하는 순진한 꼬마,
혹은 어리석은 어른이 되기를 자청하고 이야기를 정리해본다면
내 역할이 그리 쓸모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자연을 두고 인간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나에게는 사뭇 이상한 것으로 다가왔다.
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쉬이 이해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자연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지, 자연 내부에 살아가는 생명체일 뿐인지,
어디에 인간을 위치 시키느냐의 문제이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나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연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통역하고 대변하는 것이,
구럼비에게는 그 자체로 피곤한 일로 다가올 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자연이, 구럼비가 인간의 언어를 할 줄 안다면, 혹은 인간이 자연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획자에게 상상적 통역을 부탁했다.

부담스럽고 오만한 시도일 수 있지만,
나보다 구럼비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그에게
구럼비를 대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요청했다.

구럼비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신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는지,
구럼비에게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구럼비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일지,
구럼비의 이상은 무엇인지,
구럼비에게도 이 투쟁과 갈등의 과정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으로 느껴질런지 등을 물어보았다.
이것은 기획자가 구럼비가 되어 나의 바보같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그리고 조심스레 끄적인 상상적 답신이다.

글쓴이 – 이상

기획/편집 – 임수미

사진 – 강정효, 조성봉

III. 마무리

한 해가 지났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상상은 창대하였으나 어찌어찌 겨우겨우 수습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행히도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전문 기획자의 역할을 맡아 처음 진행해본 프로젝트였는데, 구상의 부실함이 모두 현실이 되어 돌아와 정말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다가도 매일 매일이 울고 싶고 자괴감이 드는 나날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애초 계획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프로젝트가 망한 것만 같은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돌이켜보니 결과적으로 애초 구상했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큰 일들을 잘 진행하지 않았나 싶다. 과정에서 느낀 멘붕에 대해 실컷 울고 회복한 뒤, 수습에 대해 집중하며 일을 진행하다 보니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남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울고, 털고, 다시 길을 나아가기 위해 집중하다보면 원래 가고자했던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프로젝트와는 별개의 프로젝트로 난개발을 주제로 한 공연을 창작자와 연출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그 역할들과 기획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공부와 반성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었다.

아무쪼록 창대한 상상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주었던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노동했던 친구들과 기꺼이 자신의 사진들을 나누어준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삶과 투쟁의 현장에서 실천하

며 살아가는 시민들과 친구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전한다. 삶이 있기에, 투쟁하는 그대들이 있기에 이 프로젝트의 모든 시도들이 시작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난 시민들의 모습을 생각한다. 역시 마지막으로 (감히) 지구에게 감사함과 송구스러움을 전하고 싶다.

나는 강정마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계속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종종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마을에서 한라산이 보이지 않게 되는 날, 내가 제주에서 지낼 곳이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되지만, 제주에서 진행되는 난개발도, 또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청 앞 천막촌'에서 활동하던 한 친구의 말을 빌리며 지면을 마무리 하려 한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앞으로 살아갈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사는 마을이고, 내가 걷던 길이고, 제가 제주에 태어나면서부터 각인된 자긍심입니다. 저는 되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자기 결정권과 주체로 설자리를 되찾아 불합리한 정치권력의 행사를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절박한 것은 내가 나를 되찾아야 할 미래마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조아해

보이지 않는 마을들

주최/주관 : 구럼비 유랑단
지은이 : 이상 (e-sang.org)
기획/편집 : 임수미
펴낸곳, 디자인 : 꿈꾸는터
후원 : 아름다운재단

발행일 : 2019년 12월 5일
인쇄일 : 2019년 11월 27일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꿈꾸는터